

선거질서 방해행위 강력 대응해야

사전투표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투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입니다. 사무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선거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거대한 음모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사전투표함을 훼손하려 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선관위 무단침입 등에 이어 한국인임을 인증하라는 행위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광훈 목사 측이 꾸린 자유마을은 관련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엉성한 투표자수 집계 등으로 음모론의 재료를 스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승복이 어렵다는 투로 스물스물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질서 방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 투표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대처와 투명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